

한나의 사역

5/16 월

시 48:2
 2 우뚝 솟아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인 북편 끝 시온산! 이는 크신 왕의 성이라네.
 시 50:2
 2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은 빛나신다네.
 계 14:1, 4-5
 1 또 내가 보니,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리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 온 이들입니다.
 5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시 74:2
 2 옛적에 주님께서 사신 회중 곧 주님께서 구속하시어 유업의 지파가 되게 하신 주님의 회중과, 주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시 135:21
 21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와는 시온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시 53:6
 6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 된 데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야곱이 크게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시 9:11
 11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니
 시 132:13-14
 13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곳을 자기 처소 삼으시기를 갈망하셨다네.
 14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 내가 이곳을 갈망하였으니 나 여기 거하리라.

5/17 화

계 21:2-3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골 4:2
 2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엡 6:18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시 24:1-3, 7-8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세상과 그 안에 거주하는 이들이 다 여호와와 의 것이라네.
 2 그분께서 그것을 바다 위에 놓으시고 강들 위에 세우셨기 때문일세.
 3 여호와와 의 산에 오를 이 누구이며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이 누구인가?
 7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러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8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단 7:14
 14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져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었다.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다.

5/18 수

삼상 1:11
 11 한나가 서원하며 말하였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왕상 9:3
 3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서 너의 기도와 간청을 내가 들었다. 네가 건축한 이 집에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어 거룩하게 하였으니,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은 계속 이곳에 있을 것이다.

단 9:17-19

17 오, 저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황폐해진 주님의 성소 위에 비추어 주십시오.
 18 오, 저의 하나님, 주님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눈을 뜨시고 저희의 황폐함과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을 보아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은 저희의 어떤 의로운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큰 자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19 오, 주님, 들어 주십시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들으시고 행동하여 주십시오! 오, 저의 하나님,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는 주님의 성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롬 8:26-27

26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
 27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 4:6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5/19 목

시 24:9-10
 9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어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10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계 11:15, 17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17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큰 능력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계 12:10

10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단 2:44

44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왕국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통치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을 부수어 끝내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5/20 금

계 12:5, 10-11

5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10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계 3:5-6, 12-13, 21-22

5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6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13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21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22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5/21 토

삼상 1:10-11, 15, 20

10 한나는 혼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많이 울었다.

11 한나가 서원하며 말하였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15 그러자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의 주인님. 나는 영이 짓눌린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 앞에 내 혼을 쏟아 내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20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며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출 15:23, 25-26

23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마라라고 불린 것이다.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 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는 그곳에서 백성을 위하여 율례와 규례를 세우셨으며 또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2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하여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계명을 청종하고 나의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벤전 2:21-24

21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22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속임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3 그분은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되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24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낮게 되었습니다.

5/22 주일

시 62:1-12

1 나의 혼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이라.

2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높은 산성이시니, 나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

3 그대들 언제까지 한 사람에게 달려들어 모두 그를 죽이려 하는가? 기울어지는 벽, 쓰러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들.

4 그를 높은 지위에서 끌어내릴 궁리만 하며 거짓말을 즐겨 하는 그들 입으로는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하는구나. 셀라

5 내 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가 기대하는 것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6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높은 산성이시니, 나 흔들리지 않으리.

7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다네.

8 백성들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9 비천한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않고 존귀한 사람도 거짓에 지나지 않으니 저울에 올려놓으면 입김보다 가볍구나.

10 위력에 의지하지 말고 강탈에 헛된 소망을 두지 말며 재산이 늘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11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었나니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다.’

12 오, 주님! 자애도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석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 2, 5 장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 2 장

시편 라이프 스타디, 11 장

이기는자들, 1-2, 6 장

The Church in New York City

www.churchinnyc.org